

2024년 8월 18일 2443호 (나해)

연중 제 20 주일

21177 Halsted Road Northville, MI 48167

주임신부 오승수 시몬

사목회장 김광수 프란치스코 (T) 734-730-5736

연령회장 박재철 요셉 (T) 248-245-0695

사무실 (T) 248-442-9026 (F) 248-442-9020

www.standrewkimdetroit.org / email@standrewkimdetroit.org

\*사무실 시간: 수~토: 9am-5pm, 일: 7:30am-2:30pm, 월&화: 휴무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Archdiocese of Detroit



제 1 독서

[ 잠언의 말씀 9,1-6 ]

화답송

[ 시편 34(33),2-3.10-11.12-13.14-15(◎ 9 ㄱ) ]



주님 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요한 6, 55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의 말씀 5,15-2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요한 6,56 참조 ]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51-58 ]

성가

입당 : 423

봉헌 : 219

성체 : 498, 496

파견 : 12

. 주일미사 : 토(특전) -5pm, 일-8am, 10am(교중 미사)

. Lansing 공소 미사 : 매월 2 째, 4 째 주일 4pm

. 평일미사 : 수, 금 :10am / 목 : 7:30pm

. 성모 신심미사 : 매월 첫 토요일 10am 대성전

. 성체현시 성시간 : 매월 첫 금요일 10am 대성전, 미사 10:30am

. 유아세례 : 매월 첫 주일 9am 대성전, 필요시 언제나 가능

. 병자 방문 및 봉성체 : 매월 3 째 목요일 2pm-4pm

. 차량 축복식 : 매월 2 째 주일 교중 미사후 11:30am 성전앞 주차장

. 고해성사 : 주일미사 전 30 분, 평일미사 전 15 분

. 예비자 교리 : 주일미사 후 11:20 분, #10 교실

**본당 소식 및 안내**

**✧ 성경공부 8월 통독 분량 안내.**

- \* 민수기 17~36 장을 2 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자료: 본당 Web Home Page: 신부님 성경 강의 파일 참조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 숙제는 8/28일까지 사무실 교육성경부 트레이에 넣어 주시거나 교육성경부장 이메일로 ([bongyul@gmail.com](mailto:bongyul@gmail.com))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7월 미제출 숙제 있으시면 함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유아세례 신청 아십시오.**

- \* 일시: 9/01(주일) 9am 대성전      \* 신청: 사무실.

**✧ 2024년도 하반기 예비자 교리반 신청 받습니다.**

- \* 교리 시작: 8/25(주일) 교중 미사후 11:20am #10 교실
- \* 신청: 사무실에서 수시로 신청 받습니다.
- \* 신청 문의: 선교부 정성은 막센시아 248-756-4010  
고정민 엘리사벳 734-664-4572

**✧ 평일 미사 임시 변경 안내**

- \* 본당 신부님 미조리 주 한인 공동체로 특강 출장 가시는 관계로: **8/21(수) & 8/22(목) 평일 미사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9월 첫 금요일 성시간 및 미사**

- \* 일시: 9/06(금) 10am 대성전      \* 미사: 10:30am

**✧ 9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 일시: 9/07(토) 10am 대성전

**✧ 9/15(주일) '주석 압동 워령 미사' 신청 받습니다.**

- \* 기간: 9/11(수) 까지      \* 신청: 사무실

**✧ 2024 대통령 봉사상 신청서 접수**

- \* 대상: 5 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 대상 봉사기간: 9/01/2023 년~8/31/2024 년
- \* 접수 마감: 9/30/2024 까지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 대통령 봉사상 관련 정보와 신청서는 본당 웹사이트 참조 :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youth/presidential-service-awards/>
- \* 기타 문의: 박찬 제라드 ([chanpark@umich.edu](mailto:chanpark@umich.edu))

**✧ [성지에서 만나는 성경 말씀] 옷자락 술**

민수 15,38 에는 “옷자락에 다는 술”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옷자락 술은,예부터 유대인들이 몸에 착용한 ‘성구갑’과, 건물 문설주에 붙이는 ‘메주자’와 더불어 오래 사용해온 가장 중요하고도 일상에 녹아 있는 신앙의 도구입니다.

민수 15,39-41 에서는 옷자락 술을 늘어뜨리고 다녀야 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집트 탈출의 기적을 떠올리며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민수 15,38 에 따르면 옷자락 술은 자주색, 곧 푸른색에 가까운 자색 털실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옛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것이 하늘을 연상시키는 색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는데요(『바빌로니아 탈무드』 므나헷 43 ㄴ), 아마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자색이 왕실과 귀족을 상징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색 염료는 이스라엘의 북쪽(현 이스라엘의 하이파 시와 레바논) 바다에 사는 뽕고둥의 체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매우 귀했습니다(『바빌로니아 탈무드』 므나헷 44 ㄴ). 뽕고둥 만이천 마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양이 겨우 1.4 그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임금과 귀족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에스 8,15; 1 마카 10,20 등).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임금이라며 조롱한 배경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요한 19,2-3 등). 모세오경 율법에서 옷자락 술을 자주색으로 규정한 까닭도,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민수 15,40)이자 사제의 민족(탈출 19,6)임을 표시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미쉬나』 므나헷 4,1; 『민수기 라바』 17,5),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 운동을 두 차례나 일으켰다가 응징 당하는 바람에 몹시 가난해져 자색을 쓸 여력이 사라진 탓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옷자락 술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어뜨리며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태 23,5). 마태 9,20-21 과 루카 8,44 에서도 옷자락 술과 관련된 일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혈병을 앓던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술을 만지고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대목입니다(그림).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일반 유대인처럼 술 달린 옷을 입고 다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증표를 몸에 달아 은혜를 되새기게 한건,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성정을 생각하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저마다 체험한 하느님의 은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기억을 꺼내보아겠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2022년 9/25 일 연중 제 26 주일 의정부주보 6면, 김명숙 소피아]

**우리들의 정성 - 감사합니다**

8/11/2024	영모 승헌 대축일	\$ 8,616.00
8/07-11/2024	미사 예물	\$ 790.00
8/11/2024	감사 언급*	\$ 700.00
8/11/2024	계대꽃 봉헌금	\$ 0.00
7/31/2024	소 봉헌금	\$ 160.00
8/11/2024	Donation	\$ 0.00

✂ 감사 언급 : 박선영 데레사 가정, 익명 가정  
 ✂ 계대꽃 봉헌금:



**미사 참석 인원 수 (8/11/2024)**

미 사	성인	미성년(1-17세)
(토) 5pm 특전 미사	61	7
주일 8am 미사	71	1
주일 11am 미사	197	49
주일 11:30am 미사	No	Mass

✂ 주일학교/한글학교 알립니다.

\* 2024-2025 주일학교 및 한글학교 등록:  
 온라인 등록 후, 참가비는 자모회에 납부.

✂ 2025 년도 본당 달력 광고 신청 받습니다.

\* 기간: 8/11~9/01 주일 까지 \* 신청: 사무실  
 \* 광고비: \$200/column(3 inch x 1 inch)  
 \* 본당 지원 협조 차원에서 신심 단체 광고 환영합니다.

✂ 올드레아 모임

\* 일시: 8/25(주일) 11am-2pm \* 장소: 마리아 홀

✂ 9/15(주일) 사랑 축복식 신청 받습니다.

\* 일시: 9/15(주일) 10am 교중 미사후 대성전앞 주차장  
 \* 신청: 사무실

✂ 2025 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 받습니다.

\* 기간: 8/25-9/22(주일) 까지 \* 신청: 사무실  
 \* 신청비: 1년치 12 권(성주간-특별) + 운송료 포함  
 ▪ 큰 글자책: \$120 / ▪ 정규 글자책: \$90

✂ 2024 년 '본당의 날'

\* 일시: 9/08(주일) 10am-5pm \* 주일 미사: 11am  
 \* 장소: Our Lady of the Fields Camp (지난해와 동일 장소)  
 \* 주소: 7000 McClements Rd, Brighton, MI 48114

✂ 교적 updated 엽조 요청

\* 근래에 집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등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자 안내**

		8 / 18 / 2024 연중 제 20 주일	8 / 25 / 2024 연중 제 21 주일	9 / 01 / 2024 연중 제 22 주일
전례 봉사자	미사안내	이상래, 손우원	김종언, 서승일	김지훈, 김지홍
	복 사	이주석, 이태화	현종석, 박성찬	최진욱, 김욱중
	독 서	김호진, 조장군	홍재언, 성종은	한원섭, 백유선
	예물 봉헌	박재철 요셉&데레사 가정	오승룡 사도요한&카타리나 가정	김인근 안드레아&글라라 가정
	해 설	현종석 라우렌시오	인경원 에스텔	최승원 엘리사벳
	성체분배	김유식, 이귀염, 장재훈	김연숙, 백종석, 윤한호	서정복, 엄동화, 이종덕
	영어 미사	M. C.	Combined Mass	Combined Mass
영어독서		합동 미사	합동 미사	합동 미사
복 사		Adult Servers	Adult Servers	Adult Servers
Celebrant		Fr. Seungsoo Oh	Fr. Seungsoo Oh	Fr. Seungsoo Oh



### Real Estate One Rochester

완벽한 이중언어와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Jessica Chang(장은진 데레사)

Office (248)218-6504  
Cell (213)905-9232  
1002 N. Main St. Rochester MI 48307  
jessicachang@realestateone.com  
jessicachangmi.com



## 광고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 신청 하십시오!

법률 사무소



### 변호사 이호일 (리노)



Cell: (248) 675-9215  
Fax: (248) 377-8256

Email: HOIL@LeeLawSoluti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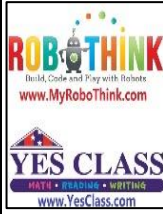
### RoboThink & YesClass Novi

이용우 (요셉)

41390 W 10 Mile Rd, Novi  
Office: (248) 482 8105

Email: novi@myrobothink.com  
Web: myrobothink.com/novi

Robot Kit with Coding  
Math and English



8월에 생일을 맞으신 안드레아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도희 헬레나 자매님  
김수진 사라 자매님  
강서린 로즈마리 자매님

안드레아희



### 센트럴 가정의학과/외과

길원호 (루카) MD, PhD

248) 905-3981



29877 Telegraph Rd, ste. 107  
Southfield, MI 48034

www.centralfamilyclinic.net

### Dental Clinic



최종률(미카엘)

4660 Washtenaw Ave.  
Ann Arbor, MI 48108  
Tel (734)572-4476  
www.jcdentalclinic.com



### 윤정란 건강보험

윤정란(클로틸다)

직장보험, 개인보험

Medicare supplement

Tel (248)210-8061(C) (248)729-6625(W)

jyoonagency@gmail.com



John P. Hwang, D.D.S.

황용광 (요한 바오로)  
(248) 689 - 5508

1155 E Long Lake Road  
Suite #8, Troy, MI, 48085  
TFD@TroyFamDent.com



### 윤석정 닥터오 (Bruce Yoon)

자동차, 집, 사업체, 건강 보험

Senior Field Representative

Office (248) 692-4400 / Cell (248) 935-1659

byoon@acg.aaa.com

### 의료 통역사 - Certified Medical Interpreter



의료기관과 상담시 통역 안내,  
메디케이드 수혜자, 보청기 정보  
안내, 필요시 환자 운송 서비스 가능

김영숙 (루시아)RN (313)587-8109

e mail: ahnysuk@gmail.com



강현일 (헬레노)

Tel (313)562-4166(Dearborn),  
22431 Michigan Ave. Dearborn, MI 48124  
Tel (248)344-1100(Novi)  
41563 W. 10 Mile Rd, Novi, MI 48375

### 서울 미용실(Beauty Salon)

24263 Novi Road (10 Mile & Novi Rd)  
Novi, MI 48375

(상도 식품 옆)  
(248) 773-2281



월-토: 9am-8pm Excellence for Perm & Coloring  
일: 10am-6pm 민연옥 (마리아)

공인 회계사(CPA)

### CPA 이상연 (요한)

Tel (248)325-8078 Cell (248)403-6786  
Fax. (248)671-0168

e-mail: leecpapc@gmail.com

Web: www.leecpapc.com

교우님들 공동생

감사합니다-4 www.mndflowers.com  
식사 전에 은혜롭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창조주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정성이 깃든 조화로운 식단으로 아내  
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엄동화 요셉-



김은의 (요안나)

Tel (248)758-8031

jhan@farmersagent.com

생명 주택 사업체 자동차 연금

### No Thai! restaurant

SIX LOCATIONS!  
ANN ARBOR, EAST LANSING, BRIGHTON  
NOTHAI.COM

### 발바라 HAIR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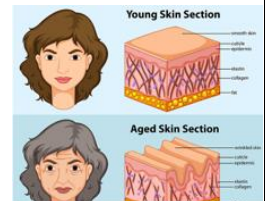
각 종 Hair Style 전문(최명자발바라)

Salon (248)888-9274  
Cell (248)255-1905  
21934 Crescent Ct.,  
Farmington Hills, MI 48335



### 노화 (Aging) - 2 - 요셉의 생각 -

사회도 고령화의 경험이 부족하고, 노인들도 노화의  
자연적 변화를 잘 몰라 불안한 마음에 넘쳐나는 "건강  
정보"라는 쓰레기들, 노화 정지를 보증한다는 oo 회사  
들의 선전에 현혹되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